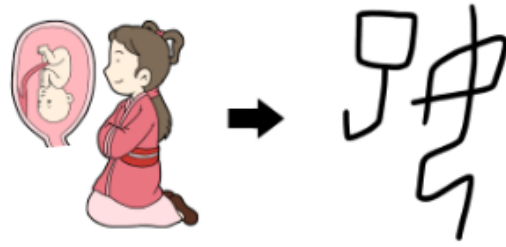


3(2)  
-  
201

회의문자 ①



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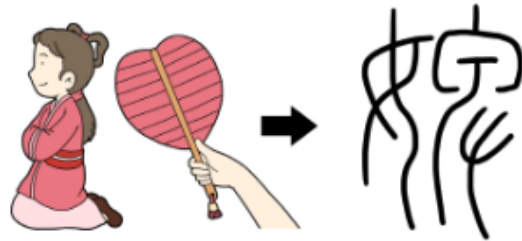
왕비 비

妃자는 '왕비'나 '태자의 아내', '배우자'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妃자는 女(여자 여)자와 己(자기 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하지만 갑골문에서는 己자가 아닌 巳(뱀 사)자가 쓰였었다. 巳자는 웅크리고 있는 태아를 그린 것이다. 여기에 女자가 더해진 妃자는 여자가 태아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妃자는 본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아내'를 뜻했었다. 그러나 금문으로 넘어오면서 巳자는 己자로 바뀌게 되었고 배우자가 아닌 황제의 첩이나 태자의 아내를 지칭하는 말이 되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3(2)  
-  
202

회의문자 ①



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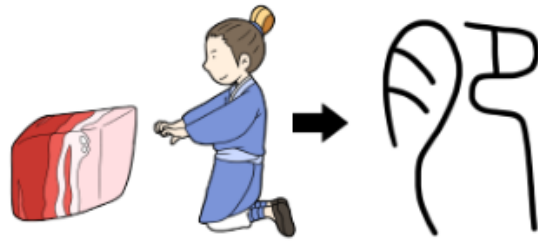
계집종  
비:

婢자는 '여자 종'이나 '소첩'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婢자는 女(여자 여)자와 卑(낮을 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卑자는 큰 부채를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낮다'나 '천하다'라는 뜻이 있다. 이렇게 큰 부채는 상전의 더위를 식혀주기 위해 하인들이 들고 있던 것이다. 그래서 큰 부채를 들고 있는 모습의 卑자는 사람의 신분이 낮다는 뜻이 있다. 낮은 신분을 뜻하는 卑자에 女자가 결합한 婢자는 낮은 신분을 가진 '여자 종'이나 '신분이 낮은 여자'를 뜻한다.

소전	해서

3(2)  
-  
203

회의문자 ①



肥

살찐 비:

肥자는 '살찌다'나 '기름지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肥자는 月(육달 월)자와 巴(꼬리 파)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巴자는 '꼬리'라는 뜻이 있지만, 본래는 손을 앞으로 쪽 내밀고 있는 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여기에 고기를 뜻하는 月자가 결합한 肥자는 마치 손으로 앞에 있는 고기를 끌어당기는 듯한 모습이다. 肥자는 이렇게 식탐을 부리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살찌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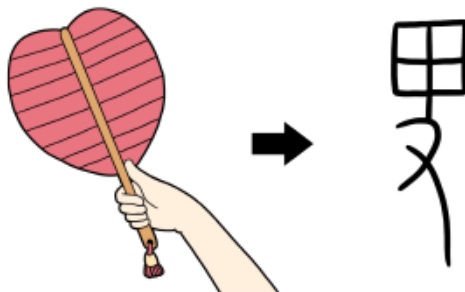
소전

肥

해서

3(2)  
-  
204

회의문자 ①



卑

낮을 비:

卑자는 '낮다'나 '천하다', '비루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卑자는 이외에도 다양한 뜻이 있는데, 대부분이 신분이 낮다는 것을 뜻한다. 卑자의 갑골문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갑골문에 나온 卑자를 보면 又(또 우)자와 田(밭 전)자가 결합해 있었다. 이것은 큰 부채를 들고 있는 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큰 부채는 시종이 주인을 모실 때 사용하던 것이다. 그래서 卑자는 부채를 들고 있는 시종의 신분이 낮다하여 '낮다'나 '천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卑

갑골문

卑

금문

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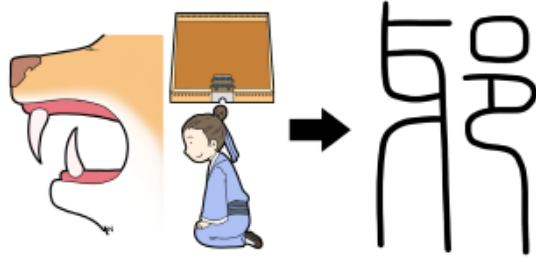
소전

卑

해서

3(2)  
-  
205

형성문자 ①



邪

간사할  
사

邪자는 '간사하다'나 '사악하다', '바르지 못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邪자는 牙(어금니 아)자와 牙(고을 읍)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邪자는 '간사하다'라고 할 때는 '사'라고 하고 '그런가'라고 할 때는 '야'로 발음한다. 邪자는 본래 고대 중국의 낭야군(琅邪郡)을 지칭하던 지명이었다. 낭야군은 진나라부터 당나라까지 존속했던 중국의 옛 행정구역으로 현재는 산둥성(山東省) 임기(臨沂)에 있는 곳이다. 글자에 이빨을 드러낸 모습이 부정적이었는지 邪자는 후에 '바르지 못하다'나 '사악하다'로 뜻으로 가차(假借)되었고 낭야군(琅邪郡)은 낭야군(琅琊郡)으로 표기하게 되었다.

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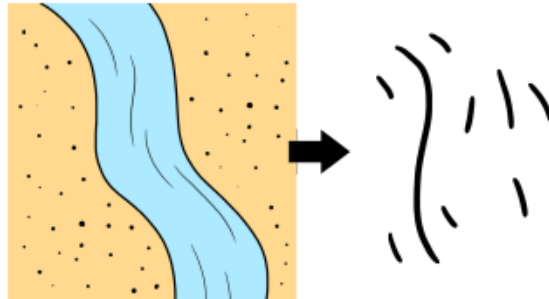
소전

邪

해서

3(2)  
-  
206

회의문자 ①



沙

모래 사

沙자는 '모래'나 '사막'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沙자는 水(물 수)자와 少(적을 소)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少자는 무언가가 잘게 부서져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적다'라는 뜻이 있다. 沙자는 강변에 퇴적된 '모래'를 뜻하기 위해 사물이 작게 부서진 모습을 그린 少자에 水자를 결합한 글자이다. 하지만 모래라는 것이 반드시 강가에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돌이 작게 부서져 모래가 되었다는 뜻의 砂(모래 사)자도 있다.

沙

금문

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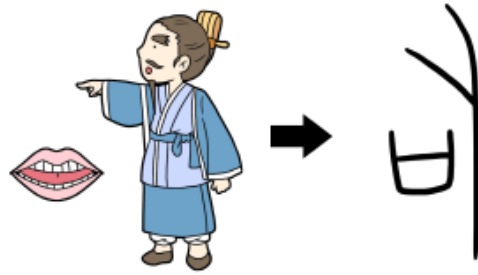
소전

沙

해서

3(2)  
-  
207

회의문자 ①



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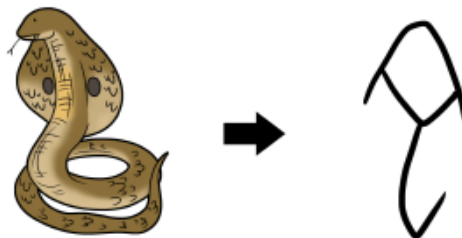
말을 사

司자는 '(일을)말다'나 '벼슬'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司자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后(임금 후)자를 거꾸로 그린 것으로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을 그린 것이라는 해석이다. 다른 하나는 팔을 하늘 높이 들어 명령을 내리는 사람을 그린 것으로 보는 해석이다. 그러나 갑골문의 형태로 보면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이 명령을 내리는 모습에서 '주관하다'나 '관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3(2)  
-  
208

상형문자 ①



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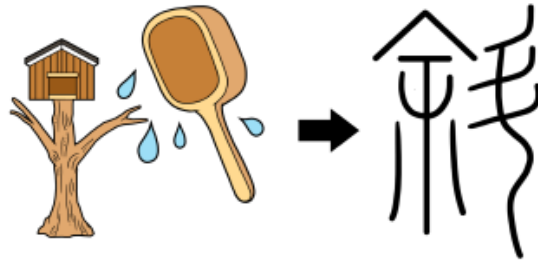
긴뱀 사

蛇자는 '뱀'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蛇자는 虫(벌레 충)자와 它(다를 타)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蛇자에 쓰인 它자는 '다르다'라는 뜻을 가지고는 있지만, 본래는 뱀을 그린 것이었다. 它자의 갑골문을 보면 몸을 세워 목 부분을 평평하게 펼친 뱀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문에서는 它자가 '다르다'나 '딴 사람'이라는 뜻으로 가차(假借)되면서, 여기에 虫자를 더한 蛇자가 '뱀'을 뜻하게 되었다. 그러니 蛇자에 있는 虫자는 뜻과는 관계없이 단지 긴 몸통을 가진 동물이라는 뜻만을 전달하고 있는 셈이다.

갑골문	소전	해서

3(2)  
-  
209

회의문자 ①



斜

비길 사

斜자는 '비끼다'나 '기울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斜자는 斗(말 두)자와 余(나 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余자는 나무 위에 지은 집을 그린 것이지만 '나'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나'라는 뜻을 가진 余자에 국자를 그린 斗자가 결합한 斜자는 사사로운 이익은 자신에게 치우친다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斜자는 斗자를 응용해 곡식을 퍼 담을 때는 자신에게 더 많이 치우치게 된다는 의미에서 '기울다'를 뜻하게 된 것이다.

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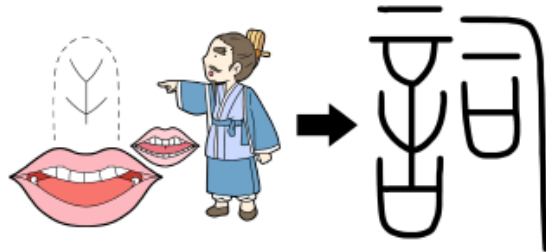
소전

斜

해서

3(2)  
-  
210

회의문자 ①



詞

말/글 사

詞자는 '말씀'이나 '문장'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詞자는 言(말씀 언)자와 司(말을 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詞자는 본래 言자가 없는 司자가 쓰였었다. 司자는 손을 뻗어 명령을 내리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주관하다'나 '말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司자가 사령(司令)이나 사법(司法)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것도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내리는 명령을 뜻하기 때문이다. 소전에서는 여기에 言자가 더해진 詞자가 파생되었는데, 이는 높은 사람들의 '말씀'을 뜻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지금의 詞자는 '시문'이나 '문체', '문장'과 같이 단순히 '글'과 관련된 뜻으로만 쓰이고 있다.

詞

소전

詞

해서